



· 목 차 ·

- 2 의학리포트  
암치료, 새로운 가능성 열리다
- 3 신인재 칼럼  
10년후의 아주대학교의료원
- 4 진료교실 I  
아노증, 치료를 받아야 하나?
- 6 인제탐험  
- 불임 이야기
- 10 진료교실 II  
노안증세가 있으면 근시교정이 안되나?
- 12 우리 병원 어떤가요?  
산생명의 지시를 잘 지키는 것이 곧 치료다
- 13 AMC NEWS
- 1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19 건강 Q&A - 입냄새
- 20 잊을 수 없는 환자  
부부의 눈물
- 21 내가 꿈꾸는 의료인  
온전한 영혼
- 22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마음이 아픈가, 가슴이 아픈가
- 23 의료장비 소개  
세기조절방사선치료(MRT)
- 24 아주대병원 100% 활용하기 종교실
- 25 잘못된 건강상식  
이게 중풍인가요?
- 26 응급처치, 어떤편 이렇게  
익수사고시 응급처치법
- 27 진료시간표

## 함께 사는 세상, 아주대병원이 함께합니다



땀, 땀, 땀

여름은 땀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모든 땀이 똑같지는 않은 듯 합니다. 선의와 희생의 땀이 있고 쾌락과 파멸의 땀도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은 최근 하계의료봉사활동과 2001년 대학생 해외봉사단의 일원으로 참가,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난 8월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펼친 이번 하계 의료봉사활동에는 의사 11명, 간호사 3명, 약사, 방사선사, 의대 학생 등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과, 소아과, 피부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산업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 대하여 의료활동을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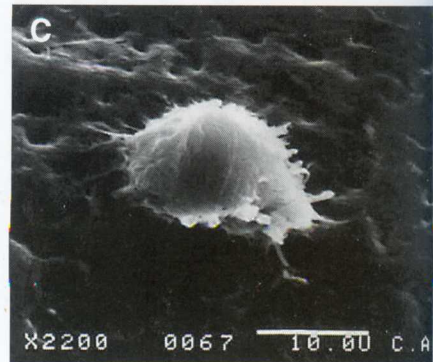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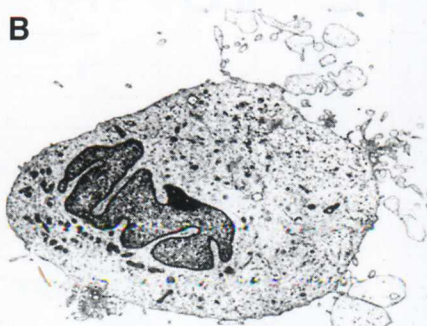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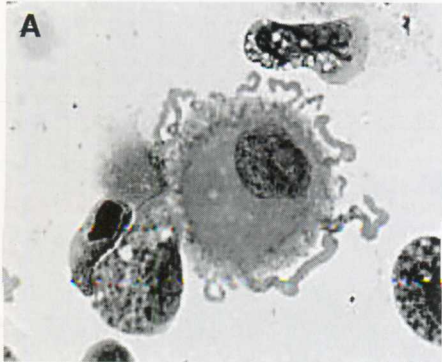
의대학생들도 아시아권 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의 일원으로 베트남 하따이성 탄오아이군을 방문하여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찾아가서 해결하여 주는 병원. 아주대병원은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 암치료, 새로운 가능성 열리다

— 혈액 · 종양내과 김현수 교수, 암환자 세포를 이용해 면역기능이 강화된 수상돌기세포 만들어 —



▲ 김현수 교수팀이 만들어 낸 수상돌기세포 (좌로부터 광학현미경(×400)(A), 전자현미경(×2,200)(B, C)).

조혈모세포에서 분화된 수상돌기세포는 수상돌기가 여러개 보이고 세포질이 풍부하며,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등 보통 수상돌기세포와 같은 형질을 나타냈다.



▲ 김현수 교수

### 혈액

혈액 · 종양내과 김현수 교수와 벤처기업 라이프코드가 최근 암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암에 대해 강력한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수상돌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백혈구의 하나인 단핵구를 이용해 수상돌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존의 면역치료와는 달리 인체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조혈모세포를 수상돌기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으로, 인체에 소량 존재하는 단핵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많은 양의 수상돌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 암 치료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조혈모세포는 다른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골수촉진제를 사용하면 손쉽게 혈액에서 추출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상돌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상돌기세포(Dendritic Cell)란 인체에 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림프계 조직으로 이동해 T세포에 병원균의 침투를 알림으로서 체내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로, 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만들어진 수상돌기세포는 자체적으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투입된 자리에서 직접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암환자의 수상돌기세포는 암세포를 인지하는 능력이 급격히 약해져 있는데 이에 암환자의 암조직을 떼어내 잘게 갈아 수상돌기세포와 함께 배양하면 그 암세포를 인지하는 능력이 강화된 새로운 수상돌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 특정 암에 걸린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이나 수술요법과는 달리,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수상돌기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여 치료함으로써 거부반응이나 부작용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이에 김 교수는 「연구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을 위해 미국 임상시험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올해 안에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국내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